

# 율법의 틀을 깨고 복음의 틀로

## -복음으로 여는 히브리서-

출애굽기29:38-46, 히10:1-4

정윤돈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평생 저희와 함께 하여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평생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넘치도록 허락하여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율법의 틀을 깨고 복음의 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율 해 주제가 ‘오직 예수로 행복한 교회’이다. 가장 큰 틀이 그것인 것 같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성분들은 살 빠졌을 때, 조금 예뻐졌을 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꿈이 성형 수술하는 것이다. 혹은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 돈을 버는 것. 그런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시지 않으신가? 옛것에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아들이었다. 목사님이 엄하고 율법적이었는데, 설교하다가 아들에게는 꼭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고 저 뒤에 앉아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앞에 앉혔 정도였다. 이 친구가 머리를 푹푹해서 중학생이 되어서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아 하나님은 없구나. 우리 아버지를 보라.’ 기도해도 교회는 개척교회이고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을 접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부인도 부장급 여인을 만나서 풍요롭게 결혼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이 깨진 것이다. 나라으로 떨어지는데 돈은 많으니까 사고 싶은 것을 사는데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준은 복음이시길 축원 드린다.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은가.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명품도 다 사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다.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어디서 행복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마음에 살롬, 평강이 오는데 그 기도로 행복해야 한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제자, 램네프와 만남의 응답이 일어난다. 되어지는 전도, 찾아오는 전도가 일어난다. 그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과거의 성도들을 만나면 깜짝 놀란다. 내가 설교했는데 설교한 나보다 더 적용을 잘 하신다. 어제 대학청년부 임원팀장들이 스킵캠프 갔다. 권사님이 말씀하신다. 램네프가 한 달 전부터 스킵캠프 가고 싶다고 집에서 계속 이야기했다고 한다. 송구영신예배 드릴 때 우리는 기도원 갈 거다. 금식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원은 스킵캠프이다. 할 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한다. ‘램네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는구나.’ 했다고 한다. 나는 한 달 전부터 머릿속에 ‘스킵캠프 가서 캠프해야지.’ 했다. 알고 보니까 램네프의 기도 때문에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든 것 같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늘 보좌가 움직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 기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하니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갱신되는, 틀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한다.

오늘 히브리서를 나누는데, 히브리서에서 가장 논란되는 것이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유세비우스, 제롬,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바울서신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글을 쓰려면 사도바울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인사말을 쓴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저항하는 내용이다. 틀을 깨부수는 내용이다. 그러지 않아도 핍박받는데, 저였어도 맨 앞에 이름과 인사말을 뺀 것 같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나바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교부 ‘오리게네’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천재였냐면, 성경전체를 6개 국어로 번역했다.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한다. 우리는 좀 모르겠으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답인 것 같다. 이민족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는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지식과 이해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수천 년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틀을 복음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급한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 오직 예수로 끝나지 않고 복음도 믿어야겠지만 할례도 해야 한다, 제사도 지내야한다,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틀 속에 있으면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사도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한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다. ‘내 인생에 장애가 되는 존재조차 만

난 적이 없다.’ 깨라고 해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방해가 될 때가 있다.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한 것도 쉬어갔다. 그 장단점 속에는 굉장한 단점도 있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금도 그렇지 않은가.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바로 그것이다.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 안에 아주 나쁜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망하는 것이다. 외골수로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 문제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여러분의 달란트들이 장점으로 남기를 축복한다.

삼성의 이진희 회장이 1993년 6월 13일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다. 그 후로 삼성이 반도체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20-30년 전에 일본에 갔더니 전자제품들이 너무 많다. 그거 구경하느라고 바블 정도로. 그러나 삼성회사가 얻는 이익이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많다. 율해는 4G에서 5G로 가는데, 중국 미국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1,2년이면 다 설치한다. 생각해보셔라. 4G, 5G의 기지국을 설치할 해야 하는데, 그 넓은 땅에 언제 다 설치를 하겠는가. 우리를 절대 못 따라온다. 우리가 기도만 잘 하면 된다. 과거에는 싱가포르 정도 사이즈면 좋았는데 지금은 또 작다. 정말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에 우리나라가 경제국가 2위가 된다는 말이 맞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장점도 많지만 그 빨리빨리 속에는 단점도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면 된다. 깡다고 해서 다 깨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은 잘 보관하고 두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틀에서 빼어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로마의 속국생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생활까지 시키시면서 항상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셨다.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무작정 떠나면 안 된다.(웃음) 성령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 어떤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길이라도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안 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싫어했다. 어려운 길이었다. 어디로 가려면 목적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가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마음속에 부딪히면 그 미래가,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상으로 확실히 보여주실 줄을 믿는다. 지금 있는 문제는 허상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 실상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인양 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다. 1분간 기도해보라.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질문을 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란다. 사울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민족 것인가? 여리고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면 정복하는 것이다.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그 건물과 땅이 여러분의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그 질문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수록 더 큰 응답일 수 있다. 뒤집어서 더 크게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한다. 어제도 한 시간 동안 저녁에 이야기했다. 어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반대이다. 그 분을 가만히 두면 응답받은 텐데 자꾸 앞서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리는 것이다. 선한데 어리석고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친구를 대하는데 핍박받을수록 응답이 커지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나를 죽이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라고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반대로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틀이 깨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다. 그런데 총리가 되었다. 모세는 왕궁생활을 버리고 평야생활을 하게 하셨다. 오늘 나눌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시대를 맞이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복음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계신다.

### 1.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옛 틀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의 틀을 깨지 못해서이다.

(1)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16장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제자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히1:2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천사가 와서 말한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했다.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하는가.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2)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천사는 오히려 인간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히1:14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라고 나와 있다.

(3) 모세가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히3:5-6에 모세는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누가 높은가. 그 때 당시에는 노예제도도 있었다. 노예가 높은가, 주인의 아들이 높은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는 섬기는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히3:5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써 그와 같이 하셨으니'라고 나와 있다.

(4)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 예수님은 사대성인 중 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인격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것이 다른 것이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훌륭한 선생님, 랍비가 아니다. 세상적인 지식, 윤리, 도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비유하면서 멜기세덱이 살렘 왕에게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 살렘 왕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십일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으니 누가 더 높은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살렘 왕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한다. 히7:2에 말한다. '먼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5) 복음과 함께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이 율법 중에는 안 없어지는 율법이 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제사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율법이 해결된 줄을 믿는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은 아직도 이러한 틀을 깨지 못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히10: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통과 습관 때문에 그 틀을 벗지 못한 것이다.

## 2.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게 갖춰야 할 복음의 틀을 말하고 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겠다.

(1)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붙잡기를 바란다. 비교할 수 없다. 히1:3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 어떤 종교도 마귀, 귀신을 이기는 종교는 없다. 다 귀신을 만들어놓고 절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주신 것이다.

(2)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히4:14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다 버려도 된다. 날, 방향,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부적, 굿, 점술과 같은 미신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언약에 마귀 자녀이면 해야 한다. 마귀의 종이면 해야 한다. 안 하면 마귀가 때린다. 날과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한두 번 문제가 생기면 꼭 하게 된다. 복음 안에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줄을 믿기를 바란다.

(3)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현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셨다. 현 언약은 짐승으로 드리는 피 제사이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언약이다.

(4) 이제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새로운 영적인 틀이 있다. 그것은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완전 해결되었으니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끝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혼과 육이 흠 없고 티 없이 보

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온전하신, 윤리 도덕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주의할 것은 그 잣대를 남에게 대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일 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기도하고 살리고 도와줘야 한다. 나 자신에게는 항상 겸허하게 체척질하고 갱신해야 한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요셉의 모습을 보라. 다니엘, 에스터의 모습을 보라. 디모데와 디도처럼 롬16장의 인물들을 보라. 흠이 없고 티가 없다. 마치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같이.

(5) 죄와 짐 같은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나 복음증거에 걸림돌 되는 것이 있다. 다 버려야 한다. 기준이 이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복음에 조금이라도 유익하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시소와 같다. 1%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 진도에 유익하다면 그것을 하면 된다.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는데 진도에 방해가 되면 하지 말아야 한다.(웃음) 우리는 그 기준이다. 복음의 기준인 것이다. 계속 거짓말해서 유익하다면 계속 해라. 흰 거짓말도 있기도 하다. 계속 거짓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렇게 해라.

(6) 고쳐야 할 것이 있다. 피곤한 손을 고쳐야 한다. 연약한 무릎을 고쳐야 한다. 저는 다리를 고쳐야 한다.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나는 진도도 못해요.' 이런 무기력,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충만 받아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강하게 만드시기를 축원한다. 그렇게 해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옛 체질이 아니라.

(7) 또한 마음에 긴직할 것이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유대인처럼 율법적인 교훈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요새 정치를 가지고 좌파, 우파니 뭐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당이 아니다. 우리는 천당과이다.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는 독립운동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237개 나라를 다 살려야 한다. 모든 이념에 치우진 사람들은 사랑의 이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복음적인 이념으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 지역, 저 지역 말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란다.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기를 바란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인데, 어떤 사람이 혼자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속에 '저 사람 구원받았네.' 한다.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온다. 모든 분들은 설거지 앞에서 인상 쓰지 말고 찬양하시기를 바란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 2019년도에 우리들이 새롭게 응답받아야 할 영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1. 다른 시스템이다. 이것은 새로운 현장에서 제자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류목사님이 이번엔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보증을 하는데 이는 사람에게만 보험 들게 하면 6개월 못 간다고 한다.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내고 사명자를 찾아내야 한다. 귀인이라는 책을 봤는데 성공하는 모든 사람은 귀인을 만났다고 한다. 여러분 자신이 귀인이 되시고 현장에서 그러한 제자, 파트너를 만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한다. 이것이 다른 시스템이다.

2. 단독 시스템이다. 혼자 있어도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이것을 특별히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는가. 노예생활, 속국생활, 포로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응답을 누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배운 것이다. 요셉이 교회를 다녔는가, 합숙을 다녔는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단독 시스템을 본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3. 제3의 시스템이다. 우리들이 원네스 되어서 텅텅 비어있는 현장 속에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1,2,3 RUTC인 것이다. 2019년에는 오직 예수로 행복하여 천 년의 응답을 꿈꾸고 실현시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237개국에서 우리가 RUTC를 세우며 전 세계복음화 할 일천만 제자를 세우기 위한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틀이 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드려질 함께 하는 성찬을 통해서도 최고 응답받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